

세계도시

2006. 12. 4 제156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

도시경영·경제

1. 옥외광고 위반 처벌 강화 (일본 도야마縣)
2. 직업체험을 통해 경제구조를 배우는 테마파크 (동경 고토區)
3. 區 위탁시설 평가결과 인터넷에 공개 (동경 다이토區)
4. 푸르드프랑스 사이클대회 유치로 2000억 원 관광수익 예상 (런던)
5. 2006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州 혁신상 후보기업 선정 (베를린)
6. 안테나숍을 통한 상점가 진흥 (동경 이타바시區)
7. 2008년까지 10개 시급(市級) 특색상업지구 형성 (북경)
8. 창구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연기 (동경 아다치區)
9. 산업지원형 NPO와 협력해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요코하마)
10. 도시경영 국제 교육 실시 (브라질 쿠리치바市)
11. 긍정적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이벤트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市)

디지털 도시

12. 인접 자치구간 합동 디지털서비스 혁신위원회 운영 (영국 맨딩市)
13. 베를린 장벽 안내 정보체계 도입 (베를린)

복지·문화

14. 가족 사회보장 보고서 발표 (베를린)
15. 베이비붐 세대에게 배우는 '정년 후 꿈' (동경 무사시노市)
16. 유치원·보육원 연대형의 '인정(認定)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 (요코하마)

도시환경

17. 대기오염차량에 도심혼잡통행료 이중부과 (런던)
18.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기오염 50% 감소 전망 (브라질 쿠리치바市)
19. 환경보호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 금지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20. 市 허가 없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장치 설치 가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21. 신입생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환경보호방법 정보 제공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22. 재검토되는 도시 지하수 (동경)

도시교통

23. 오토바이 전용차로 신설 (브라질 상파울루市)
24.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브라질 쿠리치바市)
25. 무인카메라 신규 표지판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브라질 쿠리치바市)

도시계획·건설·주택

26. 고속열차로 연결된 신규 공항 개발 필요성 제안 (영국)
27. 배터시 발전소의 재개발 계획 (런던)

벤치마킹 사례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

<주요 내용>

일본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1989년 개최된 요코하마 박람회를 계기로 박람회장 및 박람회 시설물을 활용해 미래형 도시지구를 만든, 이벤트형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다. 낙후된 요코하마항과 주변지구를 재활성화하고자 요코하마항과 주변의 10만 588㎡를 박람회와 이후 연계된 계획에 따라 재활성화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수변 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진 조선소와 관련 시설,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활용해 임항파크를 비롯한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업무와 쇼핑, 음악과 미술,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모델을 창조하고자 했다. 주요 시설로는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콘서트홀, 니혼마루(일본 초기의 범선)를 활용한 기념공원, 석조 독(Dock)을 개량한 독야드 가든, 요코하마 아이(회전대 관람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시설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도 같은 개념의 미래형 디자인을 적용해 지구의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개발기간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간 진행됐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 민간기업, 제3섹터인 'Pacifico Yokohama Corp'가 공동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와 요코하마시는 매립 및 항만 정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건립을 담당했고, 민간기업은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을 담당해 개발의 신속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설 및 평가>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사례는 매력적인 수변공간 창출이 도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하게 된 최근의 도시수변 공간 개발사례에 부합한다. 세계 대도시들이 물과 인접해 건설됐으며, 최근 도심재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수변공간 개발은 도심부 재개발의 주요

전략의 하나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나토미라이21 지구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체계에 기반을 둔 개발의 신속성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에 있다. 그뿐 아니라 문화를 중심으로 과감한 도시재생 전략을 취함으로써 물리적 공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선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코하마 아이



정비된 선착장



미나토미라이21 지구



니혼마루 메모리얼파크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市는 민선 4기 역점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수(利水)와 친수(親水) 관점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문화자원인 한강을 활용하는 것이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한강의 자연적인 제한요건과 개발시대에 제한된 한강의 여건이라는 이중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고수부지와 저수부지는 서울시민을 홍수로부터 격리해주는 최소한의 도시방재장치이기에 친수의 관점에서 그것을 쉽게 철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개발시대에 무차별적으로 만든 한강변의 아파트단지 역시 문화의 시대에 걸맞은 한강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제한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도시들의 수변공간 개발전략보다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 요구된다.

<벤치마킹 시행방안>

‘미나토미라이21’ 프로젝트를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접목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한강과 인접한 공공시설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을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실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경우, 문화활력센터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중앙정부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세계도시들의 수변공간 개발사례가 대부분 랜드마크 문화시설(테이트모던 갤러리, 구겐하임미술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시설의 문화적 재생전략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에서도 심도 있게 추진해볼 만하다. 다만 주의할 것은 테이트모던 갤러리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한강에서도 그대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시설에 걸맞은 문화수요와 문화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과 창작기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측면에서 랜드마크 문화시설보다는 서울의 장기적인 문화 경쟁력을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기능과 콘텐츠 생산기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둘째는 민간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수변개발은 한강의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공공시설물로서 한강의 연속성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활용돼 온 관광기능, 교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민간 활력의 활용이 필요하다. 민간 활력을 활용할 경우 서울市 도시기본계획,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의 성격, 개발대상지의 물리적 조건 및 공공시설물로서 한강시민공원과의 기능적 보완 및 연계 등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벤치마킹 기대효과>

현재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의하면, 선적인 한강공간 이용을 배후지역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워터프런트타운 조성계획 및 수변공간 개발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수립해 운영할 예정이며, 4대 지천 유입부와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뚝섬, 마곡지구 등을 검토대상지로 구상하고 있다. 이들 대상지 중 시범지구를 선정해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은 형태의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그 효과가 전 지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민간 활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한강주운(舟運)의 개선을 통한 열린 흐름의 확보, 물류 및 여객운송이 가능한 교통망의 구성 등이 대표적인 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윤혁렬 도시교통부 연구위원(yoonhr@sdi.re.kr)

1. 옥외광고 위반 처벌 강화 (일본 도야마縣)

일본 도야마(富山)縣은 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의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하는 광고주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깨끗한 도시경관 형성 간담회’에서 縣 내 도로가에 광고 간판이 난립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방해하는 옥외광고물이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위반 광고에 대한 대책 강화의 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은 간판 설치 후에 철거 등을 요구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광고의 경관 영향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규제 강화의 모델 사업으로서 ‘경관 만들기 중점지구’를 縣 내 2곳에 지정하고 지역주민, 광고 의뢰인, 설치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의 제휴를 추진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縣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2006년 4월부터 광고업자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縣은 앞으로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색채나 면적 기준을 통일하는 등 옥외광고 허가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www.yomiuri.co.jp/e-japan/toyama/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이므로, 공공 공간의 질이 중요시되는 문화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은 다수의 광고주가 형성되기 마련이므로 市 정책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자치구별로 관리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본 도야마縣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고주의 책임강화 방안은 자발적인 참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자치구 관리의 특성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강남區 등 자치구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개선대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조사례나 적용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승만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mbaek@sdi.re.kr)

2. 직업체험을 통해 경제구조를 배우는 테마파크 (동경 고토區)

2006년 10월 일본 동경都 고토(江東)區 도요스(豊洲)에 소방대원이나 객실승무원, 의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테마파크 ‘깃자니아 동경’(キッズニア東京)이 개장됐다. 전체 6000㎡의 가상의 거리에 50개의 직업체험 파빌리온(Pavilion)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이 직업체험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쇼핑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어린이들에게 일의 보람과 즐거움, 경제구조를 배우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깃자니아는 1999년 멕시코에서 탄생해 연간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시설의 일본판으로, 기업 등의 협찬을 통해 병원, 건설현장, 신문사, 치과의원, 여객기, 극장 등의 파빌리온이 배치됐다. 어린이들은 소방대원 복장을 하고 연기가 나는 공장의 가상 화재현장 세트에 투입되거나 경찰관이 돼 은행의 강도 미수사건을 해결하려고 어른 은행원들을 조사하며 흥기의 지문채취를 하는 등 직접적인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 시 ‘깃조(キッゾ)’라 불리는 전용통화로 금료를 지급받아 파크 내의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www.kidzania.jp/)

(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0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국내에서 테마파크는 여가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세계 50대 테마파크 가운데 3개를 차지할 정도로 테마파크 산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국내 테마파크는 테마를 주제로 한 본래 의미의 여가시설보다는 라이드 위주의 오락시설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국내의 테마파크가 상상의 세계, 모험의 세계, 환상의 세계 등 전통적인 디즈니랜드의 테마 및 단지구성을 따라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대규모 테마파크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국내에는 특정 테마 및 소재를 택해 오락과 지식을 전달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은 발전해 있지 않다. 일본에는 아톰박물관, 건담박물관, 라면박물관, 지블리박물관 등 특정 소재 및 주인공을 주제로 한 개성이 있는 테마시설이 많이 있어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과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일본에서 개관한 직업체험 테마파크는 특히 어린이에게 또 하나의 흥미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이지만 이런 개성과 특성이 있는 테마공간이 서울에 도입이 된다면 도시 문화 및 오락의 다양성을 더할 것이다.

/윤형호 도시경영부 연구위원(younh@sdi.re.kr)

3. 區 위탁시설 평가결과 인터넷에 공개 (동경 다이토區)

동경都 다이토(台東)區는 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민간기업 등의 지정관리자에 대한 근무태도를 독자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2006년 12월까지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거나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는 매우 드문 일이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작된 지정관리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관리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 서비스 향상과 경비 삭감을 목표로 2006년 9월부터 모든 공공 및 민간시설에 적용됐다. 대상시설은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57개이다.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지정관리자 근무태도의 평가 방안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區는 2006년 6월 전문가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서비스 내용과 시설 관리실태 등 29개의 평가항목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A+(우수), A(타당), A-(개선 과제 있음), B(개선 요망)의 4단계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57개 시설 가운데 49개 시설이 A, 8개 시설이 A-로, A+와 B를 받은 시설은 없었다. A 판정을 받은 '아사쿠사 공회당'의 지정관리자인 區 예술문화재단에 대해 아사쿠사 예능대상(大賞) 등의 사업을 높이 평가한 한편 A- 판정 시설에서는 보수관리나 광열비 삭감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001.htm)

4. 뚜르드프랑스 사이클대회 유치로 2000억 원 관광수익 예상 (런던)

2007년 7월 세계적인 사이클 경주대회인 뚜르드프랑스(Tour de France)의 출발점을 유치한 런던市와 켄트州가 약 2000억 원 이상의 관광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출발점 경주(London Grand Depart)는 런던 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지나 유서 깊은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며, 경기를 보기 위해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런던市와 켄트州를 잇는 경주구간을 찾는 것은 물론 전세계 방송 중계로 영국 남동부 지역이 소개되면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tfl.gov.uk/tfl/press-centre/press-releases/press-releases-content.asp?prID=924)

5. 2006년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혁신상 후보기업 선정 (베를린)

베를린市 경제노동·여성부는 2006년 11월 3일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146개 후보기업 중 7개 기업을 올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혁신상 후보로 선정했다. 선정된 7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베를린市에서, 나머지 2개 기업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선발됐으며, 최종 수상기업은 2006년 12월에 발표된다. 각 수상기업은 1만 유로(약 1200만 원)씩 받게 되며, 최대 5개 후보자까지 선발 가능하다. 혁신상은 1984년부터 매년 베를린市 기업에게 수여됐는데 1992년부터는 브란덴부르크주로 확대 시행됐다.

관련부처는 혁신상 선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혁신을 널리 전파하는 한편, 수상기업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영 지원은 베를린은행,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보만 데만트&파트너 등 유수의 기업들이 맡고 있다. 이번에 지명된 6개 기업은 TU-Berlin(건축자재 및 건축자재 검사 전문분야), LJU(전기회사), CLR(Dr. Kurt Richter 화학연구실),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 크리스토프 미에트케 회사, TU-Berlin(건설, 의료기술 분야)이다.

(www.berlin.de/imperia/md/content/senatsverwaltungen/senwaf/presse/archiv/2006/11/03_1.pdf)

6. 안테나숍을 통한 상점가 진흥(동경 이타바시區)

동경都 이타바시(板橋)區 상점가진흥조합은 이타바시區와 교류관계를 맺은 9개 시정촌(市町村)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테나숍의 형태로 2005년에 '막 수확한 마을'을 개장했다. 이곳에서는 해당 시정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계절별 특산품 약 600점을 판매한다. 취급하는 상품은 각지의 관광특산품이 아니라 일반 식료품이다. 상품 판매경향과 소비자 취향 등 시장정보를 생산자에게 수시로 전달해 판매전략이나 신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점에는 관광안내 홍보자료나 포스터는 물론 지역신문, 지역홍보지를 다양하게 비치해 관광홍보 기능도 하고 있다.

교류하는 시정촌과 연계해 이벤트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그곳에 가면 무언가 새로운 것, 혹은 재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종전에는 하루 약 2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2만 8000명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벤트가 있는 주말에는 3만 명 정도가 몰려드는 등 성황이다. 이러한 성과를 동경都가 인정해 이번 '제2회 동경 상점가 그랑프리'에서 경제 활성화 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www.chusho.meti.go.jp/shogyo/shogyo/shoutengai77sen/024-025itabashi.pdf)

7. 2008년까지 10개 시급(市級) 특색상업지구 형성 (북경)

2008년 이전에 북경에 10개 시급(市級) 특색상업지구와 15개 구역 특색상업지구가 형성된다. 북경市 상무국은 2006년 11월 10일 개막된 '2006 도시유통물류 국제논단'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색상업구역을 북경市 도시 마케팅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북경에는 이미 스차하이 카페거리(什刹海茶艺酒吧街), 퉁즈먼 식당가(东直门餐饮街), 마리엔따오 찻집 거리(马连道茶叶街), 라이타이 화훼시장(莱太花卉街), 스리허 가구거리(十里河家居), 홍차오 시장(红桥市场), 판자웬 골동품 시장(潘家园旧货市场), 난신창 문화거리(南新仓文化休闲街), 하이디엔 도서관(海淀图书城) 등이 특색 있는 시장과 상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다.

(北京晚报, 2006. 11. 11)

8. 창구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연기 (동경 아다치區)

주민등록증 교부 등 창구업무의 민간 위탁 방침을 표명했던 동경都 아다치區는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안 끝나 당초 예정했던 2007년에서 2008년 이후로 연기했다. 2006년 7월에 시행된 공공서비스개혁법에는 호적, 납세증명,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등 6개 창구업무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아다치區가 2007년 4월부터 과건 직원에게 단말기 조작을 포함한 창구업무를 위탁할 방침이었다. 이미 2006년 9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6개 창구업무,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교부 등 여러 업무를 위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와 총무성은 법이 정하는 것은 접수와 교부이지 단말기 조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아다치區 정책과는 “해석에 차이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연기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조작을 제외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현장 실정을 중앙정부에 알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10. 29)

9. 산업지원형 NPO와 협력해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요코하마)

요코하마市는 2006년부터 새롭게 경제 활성화 사업을 산업지원형 NPO와 공동으로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의 새로운 담당인력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의 새로운 담당인력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2개 주제를 제시한 요코하마市는, 접수된 사업계획을 검토해 지원대상단체를 결정했다.

‘베이비붐 세대 교류거점 설치와 운영’ 테마 부문에 선정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시니어 SOHO 요코하마·가나카와’는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의 취업지원으로서 ‘요코하마 ECN-Plaza’를 설치·운영해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의 활용, 새로운 고용·취업기회 확보 등을 도모하겠다는 사업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인력에 의한 요코하마 산업정보 포털사이트 설립·운영’ 주제 부문에 선정된 ‘특정비영리활동법인 VMC’는 요코하마의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최신 산업정보를 인터넷으로 매일 수신, 발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설립·운영해, 이 포털사이트를 기점으로 비즈니스 기회 확대, 기업 간 교류와 산학연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요코하마市는 선정된 단체의 사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3년간 보조한다. 우선 2006년 조성금 교부금액으로 2개 단체에 각각 200만 엔(약 1600만 원)이 책정됐다.

(www.city.yokohama.jp/me/keizai/happyou/181114.html)

10. 도시경영 국제 교육 실시 (브라질 쿠리치마市)

브라질 쿠리치마 도시계획연구소(Instituto de Pesquisa e Planejamento Urbano de Curitiba)는 브라질과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2007년 2월 ‘제1회 도시경영 업무교육’을 실시한다. 브라질과 남미의 도시 경영·계획 분야 연구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브라질과 일본 정부 간의 정보 협력 및 남미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고 쿠리치마 도시계획연구소의 루이스 헨리키 카바우칸티 프라고메니는 말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쿠리치마市 정부의 도시 경영·계획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수된다. 쿠리치마 도시계획연구소는 지난 40년간 도시 경영·계획 분야 연구에서 많

은 성과를 거두며 수십 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됐다.

일본 이민역사 100주년 기념과 함께 2007년에는 같은 분야의 다른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 도시 경영·계획 교육에 대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2월에 시행될 '제1회 도시경영 업무교육'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를 포함한 중남미 17개국의 관계자들이 초청됐다.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7238)

11. 긍정적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이벤트 개최 (브라질 상파울루市)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2006년 10월 하반기에 개최한 '포물러 1'을 비롯한 국제 자동차 전시회 및 이벤트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기간에 38만 명 이상이 상파울루市를 방문해 3억 1000만 헤알(약 1392억 원)의 관광수입이 예상된다.

상파울루市 관광국은 모든 관광 관련 분야와 협력해 레스토랑, 바, 상점 등 80여 개 업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국은 콩고냐스(Congonhas) 공항과 콤비카(Cumbica) 국제공항, '포물러 1'이 개최되는 인터라고스 자동차 경주장(Interactive Circuit)과 국제 자동차 전시회가 열리는 전시장 내 주차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했다. 행사 관련 사이트와 상파울루 관광국 사이트에서 관광객들은 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상파울루市에 대한 정보, 소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12938)

한줄 뉴스

- 교토市, 노상흡연 금지조례 제정을 위해 '市 노상흡연 금지 조례 검토위원회' 발족
- 브라질 상파울루州, '모유 기증의 날'을 맞아 모유 기증 장려
 - 기증된 모유는 미숙아와 모유를 먹지 못하는 아기에게 제공

<북경>

- 市 중심부 소재 도매상가를 市 외곽으로 이전해 상업지구 분포 조정
- 교통요지인 마띠엔 버스정류장에 출·퇴근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선별 버스표지판 설치
- 2006년 11월 12일 떠탄공원(地坛公园)에서 市 위원회 선전부 등 15개 단체가 주관하는 제3회 북경 청년 학술제(第三届北京青年学习节) 개최

디지털 도시

12. 인접 자치구간 합동 디지털서비스 혁신위원회 운영 (영국 멘딕市)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중소 규모의 인접 자치구들이 파트너십을 맺어 디지털서비스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영국의 멘딕(Mendip)市와 사우스 서머셋(South Somerset District)市는 공공서비스 혁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점(지역사회 참여도: 사우드 서머셋, 공공서비스 집행력: 멘딕)을 살리면서 불필요한 인력과 조직 낭비 요인을 줄이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경찰행정권역으로 묶여 있는 인접지역이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765&mode=thread&order=0&hold=0)

13. 베를린 장벽 안내 정보체계 도입 (베를린)

현재 베를린에 남아 있는 베를린 장벽을 안내하는 새로운 정보체계가 도입된다. 새로운 정보체계란 160km에 이르는 베를린 장벽 길에 대한 91개의 개념도를 말하는데, 동서 베를린 경계 체계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경과가 이 개념도에서 정리된다. 길이 2.1km, 폭 1.5km의 실제 면적이 A3 크기의 컬러 항공사진에 축소돼 나타나는데, 이는 플라스틱 유리로 덮인 채 현장에 설치된다. 개념도에 담긴 내용은 위치, 장벽 길 및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위치, 과거 동서 베를린 경계선, 베를린 장벽의 현 위치, 추모 공간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로 된 정보도 제공된다. 첫 번째 개념도가 2006년 11월 중순에 쇠홀츠(Schoenholz) 지역에 설치됐고, 나머지도 2006년 중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설치된 쇠홀츠 지역 베를린 장벽 길의 개념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11/nachricht2502.html)

복지 · 문화

14. 가족 사회보장 보고서 발표 (베를린)

베를린市 건강·사회·소비자보호부는 2001~2004년간 사회보장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자녀가 있는 베를린市 가족의 사회보장 필요에 대한 영향요인과 구조적 특성’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자녀가 있는 베를린 가정의 경제적인 소득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약 8%의 베를린 가정이 2004년 말 기준으로 사회보장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 지원 수령자는 총 27만 585명이다. 이 중 9만 6112명이 미성년자인데, 이는 1000명당 185명 수준이다. 둘째, 사회보장이 필요한 주요 원인은 부모의 실업과 가계소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실업자의 1/3은 사회보장 급여 수령자였는데 이런 연관성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자녀가 있는 사회보장이 필요한 집단은 자녀가 없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非)독일인 사회보장 필요집단은 독일인 필요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저학력이며 직업 구조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베를린市 건강·사회·소비자보호부는 고립, 의욕상실 및 가난의 유산이 재생산되는 구조를 막고자 저소득 가정의 사회보장지향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11/14/50370/index.html)

15. 베이비붐 세대에게 배우는 '정년 후 꿈' (동경 무사시노市)

일본 동경都 무사시노(武蔵野)市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2007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갑 꿈 기획'이란 주제로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이미 정년퇴직을 한 시민들한테 여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생활에 대해 기획안을 모집하고 있다. 응모내용 중 우수 기획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DANKAI 프로젝트'가 2007년부터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기획은 市의 의뢰를 받은 'DANKAI 프로젝트'가 제안했다.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년 후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류심사에서 우수상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2007년 3월에 개최되는 시민포럼에서 각자의 기획안을 발표하고 당일 참가자의 투표로 최우수상을 결정한다. 최우수상에는 10만 엔(약 80만 원), 우수상에는 1만 엔(약 8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東京新聞 인터넷판, 2006. 10. 22)

16. 유치원·보육원 연대형의 '인정(認定)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 (요코하마)

요코하마市는 유치원·보육원 연대형의 '인정(認定) 어린이집'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시설을 보수하려는 유치원·보육원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요코하마市 인정(認定) 어린이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정(認定) 어린이집'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기능, 지역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시설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가 허가를 했다.

요코하마市는 이번에 2개 법인을 선정해 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 2007년 4월 인정(認定) 어린이집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정(認定) 어린이집을 포함해 유치원·보육원 등의 연대추진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연대해 '유보 연대추진실'을 설치해 인정(認定) 어린이집 업무를 맡고 있다.

(www.city.yokohama.jp/me/kodomo/press/pdf/181109kodomoen.pdf)

17. 대기오염차량에 도심혼잡통행료 이중부과 (런던)

2006년 11월 14일 런던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대형 레저차량에 도심혼잡통행료를 이중 부과하고, 유럽연합 기준에 맞는 친환경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차량의 오염 배출 정도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다. 환경친화적인 혼잡통행료 부과 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A형에서 G형으로 구분되며 주행거리 1km당 무로에서 25과운드(약 4만 5000원)까지 부과하며 런던교통공사의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871)

>>> 전문가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도심혼잡통행료 부과는 시민의 반발을 초래하기 쉬워 부과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방법이 정당하고 공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을 기준으로 도심혼잡통행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공평한 혼잡통행료의 부과 관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서울시 정책 수립에도 참고할 만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행상에서 차량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차등화할 수 있는 기준(예를 들면, 차종과 연식 등을 동시에 고려) 설정이 용이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런던시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18.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기오염 50% 감소 전망 (브라질 쿠리치바市)

쿠리치바市는 신규 버스 295대 운행과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로 대기오염이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쿠리치바市에서는 국립환경자문위원회(Conama)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Proconve P-5)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내버스 엔진을 전기 엔진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크게 감소했다.

쿠리치바市는 브라질에서 'Tecnologia Limpa(Cleaning Tecnology)'로 명명된 법 규정을 준수한 첫 번째 도시다. 'Tecnologia Limpa' 법은 대기가스 배출 감소 및 엔진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리치바市는 2005년부터 시내버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11.2%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기 엔진은 환경을 덜 오염시키며 소음공해도 일반버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리치바市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1995년의 경우 디젤 연료보다 오염도가 덜한 연료 테스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는 시내버스 연료로 수화(hydrated) 알코올 95%와 첨가제 5%를 혼합해 사용했으며, 1998년에는 디젤과 바이오디젤(콩에서 추출한 에스테르<ester>) 20%를 혼합한 B20 연료로 오염가스 배출을 37% 줄일 수 있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디젤(89.4%)과 무수(anhydrous) 알코올 8%, 콩을 원료로 한 첨가제 2.6%를 혼합한 AEP 102 연료가 실험됐으며, 오염가스 방출 43% 감소 및 낮은 연료 소비와 적은 엔진 소모가 확인됐다.

이러한 테스트들은 공기 질 향상 외에도 전국적으로 고용 창출을 증가시켰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이 세계적인 콩과 알코올 생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체에너지 사용은 농가소득 향상 외에도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알코올 10억L 생산을 위해 5만 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7254)

>>> 전문가 검토의견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하고 도심지역 대기오염의 근원은 대부분 화석연료이다. 서울시에서도 맑은 서울을 가꾸기 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디젤 자동차의 엔진을 LPG나 CNG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쿠리치바시가 시내버스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디젤엔진 연료를 대기오염이 적은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시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콩과 사탕수수 등의 농업을 기반으로 풍부한 양의 바이오디젤 및 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동차 연료정책을 전환한 것은 도시환경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는 우리나라 수출의 3대 품목임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첨단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소연료 자동차는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품목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수소자동차를 시범운행함으로써 수소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반시설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경제성장과 환경부담 줄이기를 꾀할 필요가 있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9. 환경보호를 위해 염화칼슘 살포 금지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독일 슈투트가르트市는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 보행도로에 겨울철 빙판길을 녹이기 위해 행하는 염화칼슘 살포를 금지했다. 염화칼슘 대신에 쇄석, 모래 및 소금기가 없는 다른 살포재료는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결빙시에는 염화칼슘 살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겨울철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곳에는 보행도로에 살포재료를 미리 뿌려둘 수 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살포재료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포재료를 빗자루로 쓸어 쌓아두면, 청소차량이 수거해 간다. 市 환경청은 환경피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살포제를 추천하고, 시민들에게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市 환경청에서 소금물질이 없는 살포제를 다루는 상점들의 목록을 구할 수 있다.

(www.stuttgart.de/sde/menu/frame/ns_top_11021.htm)

20. 市 허가 없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장치 설치 가능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

스코틀랜드 에든버러市는 처음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장치 설치를 특별한 역사보존지구를 제외하고는 市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했다. 동시에 10호 이상의 모든 주택개발 시 10%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20호 이상의 주택개발 시에는 20%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市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치의 설치로 주택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택 개발업자는 말했다.

(Planning, 2006. 11. 15)

21. 신입생에게 학교생활에서의 환경보호방법 정보 제공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환경상담부는 2006학년도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환경상담부의 환경보호방법에는 재생지로 만든 공책과 연습장, 계속 채워 쓸 수 있는 볼펜, 종이싸개가 있는 크레파스, 형광펜이 아닌 형광성을 지닌 색연필의 사용 등이 있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간식으로 가져오는 빵은 종이나 은박지에 싸와서는 안 되고 통에 넣어 와야 한다. 빵이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호하면서 매일 새로운 포장을 통해 종이나 은박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市 환경청은 이를 위해 올해 모든 신입생에게 빵을 담은 통을 선물했다.

22. 재검토되는 도시 지하수 (동경)

2004년 10월 동경都 무사시노市 이노카즈라 은사공원(井の頭恩賜公園) 연못이 순식간에 깨끗한 물로 바뀌었다. 1개월간 맑은 상태가 지속된 후 다시 투시도가 수십cm밖에 안되는 탁해진 물로 돌아왔다. 동경都 서부공원 녹지사무소에 의하면, 연못의 물이 갑자기 투명하게 된 이유는 호우였다. 비로 지하수위가 4m나 상승, 연못에 흘러들어 일시적으로 정화됐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택지개발로 농지가 감소해 빗물이 땅속에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 발견할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지하수의 변화는 지상의 변화로 직결된다. 고도 성장기 공업용수를 대량으로 지하수에서 취수한 결과 지반침하가 심각했다. 都는 1970년대에 규제를 시작했고 현재 스미다區 등의 지하수위는 1965년 당시보다 50m 상승했다. 수위 회복이 지하시설에서는 심각한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 동경역(驛)에서는 1999년 계속 증가하는 지하수가 역사를 떠오르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해 70개의 닻(錨)을 땅속에 박았다. 동경역의 최심부는 지하 27m에 있는 소부선(線) 플랫폼이다. 40년 전 아래를 흐르던 지하수는 지하 15m까지 올라와 현재 역(驛) 지하 부분의 거의 반이 '수몰'된 상태다. '동경 메트로'에 의하면, 터널에서 빠져나가는 지하수는 연간 240만 톤이라고 한다. 'JR東日本線'에서는 동경-긴시초역(驛) 구간의 4500톤 지하수를 하천에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물이 순간 정화된 '괴현상'을 계기로 지하수에 관심이 높아진 이노카즈라공원에서 2006년 9월 지하수위 회복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빗물을 하수도에 흘리지 않고 땅속에 흐르게 하는 '빗물 침투' 시설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천됐다.

(www.yomiuri.co.jp/feature/kankyo/20061004ft03.htm)

도 시 교 통

23. 오토바이 전용차로 신설 (브라질 상파울루市)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오토바이 사고 저감 목적으로 브라질 최초의 오토바이 전용차로를 신설했다. 실험적으로 우선 수마레(SUMARE) 대로와 파울로 6°(PAULO 6°) 대로에서 오토바이 전용차로가 신설됐으며, 6개월의 시범운영 후 다른 주요 대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마레 대로에 오토바이 전용차로가 신설되면서, 자동차가 이용 가능한 차로 면적이 3m와 3.5m에서 2.5m와 2.8m로 줄었으며, 제한속도도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변경됐다.

市 교통관리국(CET)에 따르면, 수마레 대로와 파울로 6° 대로에서는 교통체증 최고 시간대에 시간당 평균 300대의 오토바이가 통행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라고 市 정부는 통계결과를 밝혔다. 상파울루市의 교통수단에서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 달한다. 자동차가 오토바이 전용차로를 침범할 경우, 127헤알(약 6만 4000원)의 벌금과 벌점 5점이 추가된다. 오토바이 전용차로 도입과 관련, 운전자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들 대부분은 도입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moto.com.br/acontece/conteudo/3059.html)

24.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환경 개선 (브라질 쿠리치바市)

2006년 10월 브라질 쿠리치바市는 보행환경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이 복잡한 크래프트 공장 인근에 '험프(hump)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市 정부는 횡단보도 높이를 보도에 맞춰 높은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들(특히 공장 직원 1500명)의 안전을 도모했다. 험프형 횡단보도는 차량에게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베토 리샤 쿠리치바시장은 출근 중이던 공장 직원 3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하자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 市 정부는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외에도 보행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공장 직원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공장 정문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6940)

25. 무인카메라 신규 표지판 설치 후 교통사고 감소 (브라질 쿠리치바市)

브라질 쿠리치바市가 2005년 상반기 무인카메라 신규 표지판을 설치한 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 표지판이 설치된 2005년 교통사고 사상자 숫자는 22.1%, 교통사고 숫자는 11.6% 감소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은 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교통자문국(Contran)은 쿠리치바의 신규 표지판 설치가 큰 효과를 거둠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는 전국으로 신규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년 이전에도 속도 단속 무인 카메라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기는 했으나, 나무 등에 가리거나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게 설치돼 큰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와 디자인으로 교체되면서 표지판 설치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베토 리샤 쿠리치바시장은 이러한 통계결과가 쿠리치바에서 도입한 정책의 효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리치바시장은 "표지판은 운전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효과가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데 이용돼야 한다. 무인카메라가 단속만을 위한 울가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6512)

한줄 뉴스

<영국>

- 정책연구기관인 'Policy Exchange', 노후-불량 건물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
- 이민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공급정책 재조정 필요성 제기
 - 2004년부터 매년 14만 5000명씩 이민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기존건물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단열재 사용이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런던>

- 런던교통공사, 2006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세계총회에서 최고 과학논문으로 맨체스터대학팀의 '미래형 교통안전체계 개발' 선정
- 런던 시내 지하철에서 공연하는 길거리 예술가들이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에 초청돼 연주
- 야생동물협회, 템스케이트웨이 개발에 있어 생태적 접근 필요성 역설

26. 고속열차로 연결된 신규 공항 개발 필요성 제안 (영국)

영국 '도시 및 지역계획협회'(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는 기존의 히드로, 카디프, 브리스틀 공항을 유지하기보다는 세번강, 템스강 하구지역 등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고 공항간 고속 열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고속철도-공항 연계방안으로 기존 국내-국제 항공노선 연결 체제보다 편하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영국공항관리공사(British Airports Authority)는 줄곧 반대하던 에든버러 공항과 도심을 연계하는 6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2000억 원)의 신규 철도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을 수정, 철도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www.tcpa.org.uk)

27. 배터시 발전소의 재개발 계획 (런던)

런던 완즈워드(Wandsworth)區는 가동이 멈춘 뒤 오랫동안 버려진 상태로 있던 배터시 발전소(Battersea) 재개발을 최근 허가했다. 區 관계자는 이 재개발 계획을 통해 9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750호의 주택, 사무실, 2000좌석의 공연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허가를 받는 데 약 13년이 걸렸고 약 4000억 원의 개발비용이 들 것이라고 개발업자인 Parkview International은 전했다. 유럽에서 대규모의 도시재개발이면서 준비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며, 템스강변에 있는 배터시 발전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게 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市 관계자는 전했다.

(Planning, 2006. 11. 15)